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II)

전홍남(한려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노년의 성과 재혼 |
| 2. 노년의 아이러니와 '이물감' | 5. 맺음말 |
| 3. 임종과 죽음, 그리고 치매 | |

<국문초록>

이 글은 박완서의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수록된 소설의 분석을 통해 그의 노년소설이 갖는 문제의식과 미래적 가치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근래 들어 노년세대의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의 대두와 담론형성이라는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 노년소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 스스로 ‘노년’의 삶을 소재로 삼아 좋은 작품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완서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진즉부터 어느 작가보다도 노년의 삶을 다양한 울림과 폭으로 확산하고, 또 노년이 안고 있는 문제의식을 노년의 삶이 녹아든 형태로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놓았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한국 노년소설의 방향과 지향점을 가늠해 보는데 시사적이다.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수록된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그의 소설은 넉넉한 웃음과 폭넓은 일상성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노년문학에 대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완서는 한걸음 나아가 칠순에도 첫사랑은 시작된다는 노년의 오묘한 사랑의 맛에도 담금질하고 있다. 자유, 그리고 무한한 삶의 바탕에 그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는 노년의 사랑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의 연륜은 늙음에 대한 막연하고도 그릇된 공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OPAL족과도 상통하는 측면도 지닌다. 그의 소설은 노년의 삶을 통해 젊은이와 똑같이 온갖 감정이 고스란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체면이라는 허위적 의식에 의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추어야 하는 인생에 대한 재발견을 시도하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맞보는 삶의 숨겨진 진실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박완서 소설은 개인이 겪는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사회 현실의 전체적인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준다.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뿌리를 둔 직관력과 섬세한 언어 감각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라는 추상 형태를 생생한 리얼리티로 빚어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박완서 소설이 갖는 생명력이자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요소로 작동하거나 독자들과의 공감의 폭을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노년소설, 문학적 함의, OPAL족, 치매, 임종, 재혼, 페미니즘, 박완서

1. 머리말

근래 들어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들 중에서 ‘노년’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좋은 작품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본다.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 스스로 ‘노년’의 삶을 소재로 삼아 창작을 하는 추세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작가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자연인으로서 노년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노년의 삶과 체험을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경우 작가의 질적 체험에서 오는 작품의 껍진성을 도외시킬 수 없는 측면을 지닌다. 또, 노년 세대의 증가함에 따른 노인문제의 대두와 담론 형성이라는 사회적인 관심사와 흐름도 일정 정도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박완서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진즉부터 지속적으로 노년의 삶을 작품의 중심의 모티프로 삼은 경우다. 작가 스스로 노년소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닐지라도, 노년의 삶과 인물을 소재로 하여 박완서만큼 명작을 쓴 경우도 흔하지 않다.¹⁾ 동시에 박완서는 어느 작가보다도 노년의 삶을 다양한 울림과 폭으로 확산하고, 또 노년이 안고 있는 문제의식을 노년의 삶이 녹아든 형태로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놓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대해서 필자는 다른 지면에서 소설집 「저문 날의 삽화」에 실려 있는 노년소설을 주요 대상으로 그의 소설이 갖고 있는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분석한 바 있다.²⁾ 노년소설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다소 빈약한 점에 주목해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통해 그의 소설이 갖는 문제성과 미래적 가치를 모색하는데 「저문 날의 삽화」는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노년에 느끼는 생의 허망함은 「저문 날의 삽화」1-5) 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삶 너머의 죽음을 향한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뒤따른 철학적 종교적 조명은 인간 삶의 불가해한 부분들을 갈고갈피 비춤으로써 인생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이른바 박완서 특유의 “문밖의식”³⁾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의 문학적 가치와 함의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상 작품을 좀 더 확대해서 그의 노년소설이 갖고 있는 문제성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의 변별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한국 노년소설의 방향과 지향점을 가늠해 주는데 시사적이다. 여기에 실린 단편들의 성격을 가늠해 보는데 무엇보다도 작가의 서문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1) 이외에도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은행나무 아래서」, 「느티나무와 어머니」(『울타리』, 이룸, 2006)를 비롯하여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문학동네, 2002)에 실린 노년소설도 주목해 볼 만하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줄고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학적 함의」 최일남과 문순태의 소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14, 한국서사학회, 2009 참조

2) 줄고,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2집, 2007, 2. 참조

3) 박완서는 「문밖의식」을 “좀 비껴난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경계선에서 가지는 객관적 태도를 자신의 창작태도로 말한 바 있다.(박완서, 「서울내기 시골 뜨기」,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209쪽).

여기 수록된 단편들은 젊은이들 보기엔 무슨 맛으로 살까 싶은 늙은이들 얘기
가 대부분이다. 늙은이 너무 불쌍해 마라, 늙어도 살맛은 여전하단다. 그래주고
싶어 쓴 것처럼 읽히기도 하는데 그게 강변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사는 것을 맛있
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난 소리 같아서 대견할 뿐 아니라 고맙기
까지 하다. 물론 내가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단맛만은 아니다. 쓰고 불편한
것의 맛을 아는 게 연륜이고, 나는 감추려야 감출 길 없는 내 연륜을 당당하게
긍정하고 싶다.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수록된 소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수록된 소설들 대부분 노년소설의 성
격에 해당하는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주인공들도 표제작 「너
무도 쓸쓸한 당신」에 나오는 노부부를 비롯하여 「마른 꽃」에 나오는 회갑을
앞둔 과부, 「환각의 나비」의 경우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찾는 딸, 그리고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꽃잎 속의 가시」에서의 죽음을 기다리며
자신의 신산했던 삶을 되돌아보는 노년 부부 등 대부분 작가와 같은 노년들이
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박완서의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 수
록된 작품들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그의 노년소설이 갖는 문제의식과 지향
점들을 추출하려고 한다.

2. ‘노년’의 아이러니와 ‘이물감’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소설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표제작으로 바람
직한 노년의 부부상을 역설적으로 암시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결코 단란하거
나 의좋은 부부가 아니었던 아내와 소학교 교장으로 명예 퇴직한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아이를 핑계 대며 사실상의 별거생활을 한 사이이다. 남편은 단상에
만 올라가면 저절로 권위적인 억양에 아무도 흠 잡을 수 없는 지당한 말씀만
줄줄이 할 뿐 아니라 뻗속까지 권력 추종적이고 경직된 가부장이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옛날 고렷적 도덕책 같은 소리만 하는 남편을 외면하면서
그녀는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 마음을 누군가가 읽고 안되겠는
게 뭐냐고 묻는다 해도 아마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두서가

없고 애매했다.⁴⁾

이렇게 두서없고 애매한 ‘그녀’에 비하면 남편은 한마디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매력없음의 본질을 이루는 남편의 체제순응은 그야말로 체질적인 것으로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남편에게 그녀가 진절머리를 찢던 것이 그 ‘갈등 없는 추종’이었던 것이며,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거기에 연유한다. 주인이 이름이나 인품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채 다만 주인이라는 게 중요할 뿐인, 참을 수 없는 남편의 인격을 참지 못해서 그녀는 서울로 유학 간 자식을 핑계 삼아 남편과의 오랜 별거생활에 돌입한다.

자연히 남편과 아내는 본인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몸을 원하거나 그리워하는 일을 안 하게 되었고, 하다못해 스킨십조차 없는 완전히 남남인 사이이다. 아내는 아들의 졸업식 날 사돈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교외에 나갔다가 쉬기 위해 들른 모텔에서 속옷만 입고 자는 남편의 하체를 보며 ‘혐오스러움’⁵⁾을 느낀다.

욕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돌아보다가 그녀는 애구머니, 소리를 지를 뻔하게 놀라면서 얼굴을 돌렸다. 팬티만 입은 남편의 하체가 보기 좋았다. **넓적다리에 약간 남은 살은 물주머니처럼 축 처져 있고, 툭 불거진 무릎 아래 털이 듬성듬성한 정강이는 몽둥이처럼 깡말라 보였다.** 순간적으로 답살이 돌을 것처럼 혐오스러웠다. 정그러운 것하고는 달랐다. 정그럽다는 느낌에는 그래도 약간의 윤기가 있게 마련인데, 이건 군더더기 없는 혐오 그 자체였다. 살을 대고 산 적이 있는 부부 사이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고덕표시-인용자, 172~173쪽)

집에 있는 구닥다리 장롱이나 책상 밥상 보듯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을 때

4)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2004, 150쪽, 앞으로 박완서의 작품은 이 소설집에 의존하며, 인용한 말미에 쪽수만 밝힌다.

5) 박완서는 인생의 ‘쓰고 불편한 맛’을 종종 ‘이물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왔다. ‘혐오스러움’도 ‘이물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 허수정은 ‘이물감’을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로 사용한다. 이를테면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경우에 남편의 손톱 밑에 낀 투박한 손이 주는 인상 혹은 남편의 말라빠진 정강이가 주는 낯섬을 ‘이물감’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여지껏 겪어 본 어떤 외로움하고도 닮지 않은 “이상한 외로움”과 등치시키면서 박완서 노년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로 사용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허수정, 「노년의 삶과 박완서의 페미니즘」, 『문예미학』 제 11호, 2004, 86-90쪽 참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심했던 아내가 이제와 느끼는 절망감과 함께 밀려오는 회한 같은 것에서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암시받을 수 있다. 아내로서의 회한과 남편에 대한 생각이 결말에 이르러 화자를 통해 더욱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들기에 충분한 시간을 흐르는 강물을 망연히 바라보는 것으로 보내다가 방으로 되돌아왔다. 방안은 강바람 부는 강변보다 더 시원하고 남편은 침대 덮개도 안 걸어내고 그 위에서 혈렁하게 남아빠진 팬티만 입은 채 코를 골고 있었다. 보기 싫은 것은 들췌치고 감기가 들 것 같아 덮어주려고 꽃무늬 덮개 자락을 들추다 말고 어쩔 수 없이 벗은 하체를 가까이 보게 되었다. **모기 물린 자국이 시뻘깁게 한창 약이 오른 것도 있고, 무르스름 가라앉은 것도 있고, 무수했다. 이 말라빠진 정강이에서 피를 빨다니, 아무리 미물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제 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때가 긴 손톱과 함께 그의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가 눈에 선했다. (고딕표시-인용자, 177쪽)

주인공은 남편이 시골학교 교장인 탓에 떨어져 살다가 아들의 대학졸업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초로의 부부다. 아내는 졸업식에서 안사돈에게 은근한 모욕을 당하고, 매사 멋대가리라고는 없이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편에게 괜한 경멸감마저 가진다. 심지어 남편의 말라빠진 정강이를 그저 냉담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인용문에도 드러나고 있듯이, 가까이에 서 본 정강이에는 무수하게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고, 거기서 드러나는 지나치게 초라하고 고달픈 살림살이 속에서 그녀는 가부장의 고단한 의무에 마냥 얽매어 있으려는 남편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몸’의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 때 몸의 만남이란 구체적인 욕망이라거나 욕정이 아니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한다.⁶⁾ ‘몸’은 때로 정신이 알

6) 한국문학의 경우도 인간의 ‘몸’ 해석과 그 답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0년 7월에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주관으로 “한국문학과 몸 담론-한국문학을 통해 본 인간의 몸, 그 해석과 담론”이라는 제하의 학술발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년도 학술대회발표지 참조.

아차리거나 미처 숨기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기도 하고, 열 마디 말이 전해주지 못하는 파스함과 애정을 전해주기도 한다. 아내는 남편의 몸을 통해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몸에 대한 생경함을 통해 그들 사이에 완전히 부재했고,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둘 사이의 소통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 정강이의 모기 물린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행위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의 정서적 화해라기보다는 아내가 여지껏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외로움, ‘이물스러운’ 늙음이 가져다주는 쓸쓸함이 곧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를 떼면 성적 욕망이 피어나는 젊은 ‘육체’가 아니라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노년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⁷⁾ 동시에 남편을 무시한 세월이 나이 들어 후회스럽거나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몸의 만남’을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아내의 자각에서 노년을 위한 삶의 한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가부장제도 속에 얽매인 어머니는 그러한 삶속에서도 품위 있고 당당해지도록 헌신과 희생을 쏟아 놓았다.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그토록 정갈한 어머니가 악취를 풍기며 딸네 집에 누워 죽음이 예고된 뒤 전화 속에 그토록 소실을 두어 애먹이던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며 여유롭게 어머니의 사후에도 자연스럽게 노인들과 벗을 내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여주인공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의식과 무관한 채 진행되는 육체의 반란 혹은 깔금한 육체의 활동을 배반하는 희미하고 산만한 정신이라는 난해한 노년의 아이러니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타인의 질병과 노년은 노년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무척 낯선 어떤 것이며, 또한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조차 분명 ‘익숙하지 않은’것임에 분명하다. 질병과 노년에 직면한 자신과 타인에게서 느끼는 낯섦 혹은 이물감은 주로 정신과 육체의 엄청난 부조화를 경험하는데서 온다. 위암 수술 후 팔약근이 “고무줄이 빠진 것처럼 열린 채 오르라드는” 작동을 못하는 항문 앞에서 어머니와 ‘나’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죽는 문제만 남겨놓고 모든 가능성

7) 하수정, 앞의 논문, 88쪽

을 다 소진해 버린 노인네들의 뉘두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난 방귀를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싶다우”했지만 하필 말년에 괘약근이 열린 채 다물 줄 모르게 되어 딸집에서 기거하게 된 것이다. 방귀를 참는 것이 ‘내’가 이해하기로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 서서 체면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삶의 존재이유 일 때, 항문의 고무줄이 빠지는 일은 어머니에겐 거의 죽음과 맞먹는 치욕스러운 일이 된다.⁸⁾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다지 예쁜 축에도 못 드는 어머니와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결혼한 아버지는 첫날밤 신부에게 시부모를 극진히 받들고 시동생, 시누이들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아내의 할일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그 때부터 그 절제절명의 명제를 주제로 한 어머니 주연의 ‘길고 재미없는 영화’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저 월급봉투 꼬박꼬박 큰집으로 들이는 것을 조강지처에 대한 유일한 대접으로 아는 바람둥이 남자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없는 영화가 지루하게나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굴욕과 수모 앞에서도 굳건히 유지한 여주인공의 안주인으로서의 체통과 자존심 덕이었다.

넌 연애결혼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일러두는 건데, 혹시 첫날밤 네 시랑이 제 부모 잘 모셔야 한다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하거나 계집은 또 얻을 수 있어도 부모는 또 얻을 수 없다는 식의 수작을 하거든, 그 자리에서 혼인 파투 치고 나와도 너를 내치지 앎마. 야단도 안 치마. 그쪽만 귀하게 기른 자식인줄 알지 말거라. 너도 똑같이 귀하게 길었어(131쪽)

단 한 번 시집갈 날을 앞에 둔 딸에게 그 분노를 내비쳤을 뿐 비장한 자존심으로 무장한 채 철저하게 자신을 갈무리하고 산 어머니에게 닥친 항문 고장은 난해하기 짝이 없는 삶의 아이러니이다.⁹⁾ 하지만 뜻밖에도 그 아이러니에서 ‘나’는 가부장제의 전형적 인물이었던 아버지와 화해할 실마리를 찾게 된다. 아내의 남은 명이 다섯 달도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제가 바뀌는 장면 또한 지나친 반전으로 여겨진다. 남편은 아내에게 생전 하지 않던 전화를 해서 울음

8) 위의 논문, 83쪽

9) 위의 논문, 84쪽

을 참은 채 ‘사랑해’를 세 번이나 연발하는데, 그 말을 엿들은 ‘나’와 어머니마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에 나뒹굴며 포복절도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르러 작가 박완서의 넓어진 지평을 엿볼 수 있다. 돌연한 화해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다. 죽음을 예고한 뒤로 아버지의 극진한 어머니 보살핌과 자식들의 슬픔은 대조되어 오히려 죽음이 시원한 쪽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주인 오빠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영락없이 길고 지루한 영화가 끝났을 때의 관객의 얼굴을 연상시켰다”는 비판은 오늘날의 노인문제의 현주소를 가늠해 준다.

3. 임종과 죽음 그리고 치매

노년의 삶에서 임종과 죽음의 문제는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모국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 하는 노인의 성향은 박완서의 「꽃잎 속의 가지」에 잘 드러나고 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한 화자의 언니는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하면서 가방 속에 수의를 넣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나 노인의 소망은 가족들의 태도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즉, 언니의 가방에서 안동포를 지어온 수의를 발견한 가족의 태도는 고국에서 죽고 싶어 하는 ‘언니’의 의도와 상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언니의 미국생활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는 ‘모국’에서 죽고 싶은 욕망으로 전환되는, 노인 특유의 임종공간에 대한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니의 그러한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은 언니의 미국행을 종용하게 되고, 미국에 돌아간 지 2개월 후 언니는 정신을 놓은 상태로 양로원에서 지내다 숨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처럼 평생 동안 이국생활을 하면서도 임종공간으로 모국을 택하는 ‘언니’의 바람은, 그러한 노인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화자인 ‘나’는 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결국 노인의 소망을 노년의 삶이나 의식에 대한 가족의 몰이해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환각의 나비」는 치매를 예외적으로 밝게 묘사한 작품이다. 실종됐던 치매 노인이 엉뚱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발견되지만 그 사태에 즈음해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은 가족들일뿐이고 정작 당사자에게 보이는

것은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일 따름이다. 이 때의 치매란 곧 죽음과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그 집에는 느낌이 있었다”로 「환각의 나비」는 칠순 노인의 방황과 원형으로서의 회귀를 다루면서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딸인 주인공의 시선으로 가족관계의 애정과 노인의 치매현상, 그리고 젊은이들의 봉공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노인문제 소설이다.¹⁰⁾

아들이 있으면서도 딸의 집에 기거해야 하는 어머니의 굴욕스러움은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아들집을 향하여 걸었음을 말해주고, 아들집의 요원함과 그 아득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거기에 이르고야 말겠다는 어머니의 집념은 무참하게 으깨진 발가락에 그대로 남았음을 통해 묘사된다. 이 소설은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노인들의 심리를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작가는 딸의 주인공 영주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환각의 나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족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온 ‘어머니’ 또는 여성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노년의 ‘몸’이 가지는 존엄성이다. 작품에서 노년의 ‘몸’은 여태까지의 비주체적 삶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가족이 아닌’ 타인과 소통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한다.¹¹⁾ 이 때 할머니의 ‘몸’이란 물론 왕성한 성적 욕망이나 생산성 혹은 노동력의 공간은 더 이상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년의 ‘몸’은 ‘기억’의 저장고이다. 정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몸’은 알아차리고 기억한다. 이 작품에서 자신의 집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곳에서 망령 난 할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빨래를 반듯하게 개키고, 아욱을 다듬고 밥을 짓는다. 그리고 그 몸은 정신이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는 채로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는 공간으로 찾아간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 도란거리며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기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아니아니 혈령한

10) 정영자,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나이 먹기」, 『여성연구논집』 제16집, 2005, 28쪽

11) 하수정, 앞의 논문, 93쪽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89쪽)

영주는 그 집을 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하숙을 치던 종암 집을 생각했다. 그 집이야말로 어머니의 유일한 자존심의 근거지였던 것이고, 어머니가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시간대였던 것이다. 그 자존심은 자식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손으로 자식을 벌여 먹이기 위해 일생동안 힘들게 일하면서 터득한 당당함에서 비롯된다. 이제 가족 안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은 그 일을 ‘몸’이 본능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작가는 이 단편을 통해 자식들이 가족 이데올로기¹²⁾가 요구하는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재 살아 숨 쉬고 있는 실체로서 눈 앞에 존재하는 ‘어머니’들을 바라볼 것과 ‘어머니들’ 또한 바람난 에미가 새끼가 잠든 틈을 타 어린 것이 손목에다 묶어 놓은 저고리 옷고름을 가위로 자르고 달려 나가듯, 하루빨리 가족이 강요한 과다한 짐을 벗어던질 것을 권유한다. 그래서 새롭고 낯설고 때로는 두렵지만 ‘몸’이든 ‘정신’이든 스스로가 원하고 또 자신의 사랑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관계들 속에 기꺼이 포섭되기를 바란다.¹³⁾

4. 노년의 성과 재혼

『마른 꽃』(1995)과 같은 작품에서 노인들의 연애 심리를 그리는 박완서는 칠순을 바라보는 현역으로서 홀로된 60살 어머니의 연애사건 이야기를 한다.

14) 대구에서 치뤄진 조카 결혼식에 고모라고 한복 벌쳐 입고 갔던 내가 환갑

12) 바렛과 매킨토시는 가족주의(familism)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familialism)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전자는 가족을 옹호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이며, 후자는 가족관련 가치에 준거한 이데올로기”로서 가족 영역에 한정된 이념이 아니라 사회생활 일반을 지배한다. 미셸 바렛 · 매리 매킨토시, 김혜경 옮김,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1994, 11쪽. 하수정, 앞의 논문 91쪽 재인용

13) 하수정, 앞의 논문, 96쪽

14) 제 1회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그리움을 위하여」의 경우도 「마른 꽃」처럼 노년의 사랑과 재혼을 작품의 모티프로 하고 있다. 집안 일을 도와주는 동생이 쓴 녀름은 나이에 당당히 재혼하여 노후에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홍상화의 「동백꽃」의 경우도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양상을 그린 소설로서 「마른 꽃」과 여러 모로 비교된다. 노년소설은 노년의 성과 재혼을 작품의 중요 모티프로 삼은 경우가 많다.

나이에 늙은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스산하게 움직이는 이야기다. 부모가 안 계신지라 폐백을 생략했다는 바람에 입고 간 한복도 무색해지고, 먼 데서 온 고모에게 자고 가라는 말 한마디 없이 거의 쫓겨나는 기분으로 기차역에 온 나는 표가 없어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 거기서 겨우 표 한 장을 구해 서울로 오게 된다. 이때 버스 옆자리에 앉은 멋진 신사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멋쟁이일 뿐 아니라 체중 관리도 잘한 것 같아 배도 안 나오고 다리고 길고 거름걸이는 여유 있고도 늙름했다. 고속버스 안에서 남들 자는 동안 이들은 젊은이들처럼 재잘대는 그 모든 것거리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사는 곳도 같은 방향이라 그들의 만남은 이어지게 된다. 그와 만나면서 세상의 곳곳이 새로워 탄생을 지르기도 하고 열 여섯 살 먹은 제집아이처럼 깡충거리며 스스로 자신이 경박하면서도 예민한 탄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 자신 속에서 느끼는 경박한 즐거움은 유희의 기쁨같은 것이었다. 해가 바뀌자 회갑기념으로 미국지사에 있는 큰 아들이 여행하자는 전화가 오고 나는 모든 제의를 거절한다.

회갑이란 본인에게만 고약한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더 고약하게 돼 있나보다. 순순히 여행을 가고 싶어하지 않자 그럼 잔치를 하고 싶은가 알고 싶어했고 그도 저도 아닌란 걸 알자 속마음을 알고 싶어 안달을 했다. 나도 모르는 속마음을 저희들이 무슨 수로 알겠다는 건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조금은 기분이 좋기도 했다.(36쪽)

“친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걸 못 참아”하는 딸이 엄마의 사건을 알게 되고, 딸애의 입에서 ‘그 늙은이’가 ‘조박사님’으로 변하면서 그의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재혼 말이 오가게 된다. 그 며느리는 홀시아 버지를 모시는 게 힘들 때마다 ‘자원봉사 하는 셈친다’고 해서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지만 순간적인 분노와 연민으로 중요한 (재혼)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재혼 말이 커지면서 “이 에미는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는 딸애는 “엄마가 재혼해도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 합장해드릴게 염려마세요”라는 식의 반응이 올 정도다. 딸의 반응을 통해서 마음의 행적을 돌이켜 보니 남편을 좋아할 때에는 정열이라 해도 좋고 정욕이라 해도 좋은 그 어떤 것이

있었으나 지금 조박사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그게 없었다. 연애감정은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정욕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와 그럴듯한 걸밋을 부러본데 지나지 않았나보다. 정욕이 눈을 가리지 않으니까 너무도 편안히 모든 것이 보였다. 아무리 멋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다칠 늙음의 속성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내복을 갈아 입을 때마다 드러날 기름기 없이 처진 속살과 거기서 우수수 떨어질 비듬, 태산 준령을 넘는 것처럼 벼르고 자지러지는 코골, 아무데나 터는 담뱃재, 카약 기를 쓰듯이 목을 빼고 끌어올린 진한 가래, 일부러 엉덩이를 들고 꿇는 줄방귀, 제아무리 거드름을 피워봤댔자 위액 냄새만 나는 트림, 제 입밖에 모르는 게걸스러운 식욕, 의처증과 건망증이 범벅이 된 끝없는 잔소리, 백살도 넘어 살 것 같은 인색함, 그런 것들이 너무도 뻥뻥히 보였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딘다는 것은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같은 아이를 만들고, 낳고, 기르는 그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 한 사이가 아니면 안되리라. 걸밋에 비해 정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재고할 여지는 조금도 없었다. (고덕표시-인용자, 43-44쪽)

앞에서 살펴본 「너무도 쓸쓸한 당신」의 결말부분과도 여러 면에서 연관된다. 노인의 연애감정 역시 애뜻하고 절절함은 젊은이들 못지 않건만 불쑥불쑥 ‘짐승스러운 시간’을 함께 해 남편에 대한 생각과 회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나의 거절에 그의 떠느리는 더 이상 수발을 들 수 없어서 배고픈 할머니나 한 분 모셔올지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 아들에게 갈 거라며 작별을 고한다. 여기서 노인의 결혼이라도 단지 ‘함께’라는 의미 이상의 어떤 것, 욕망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¹⁵⁾ 동시에 작품에서 주인공이 먼저 죽은 남편의 무덤 옆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할 때면, 현실의 그 어떤 기쁨과 슬픔도 침범하지 못할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토로하는 데에서도 죽음

15) 박완서의 「마른 꽃」과 같이 재혼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홍상화의 「동백 꽃」의 경우는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자식들과의 재산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로 가족 관계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동백 꽃」은 성생활이 가능한 때 동갑이고 여전히 정력적인 남성의 시각에서 쓰여진데 비해 「마른 꽃」은 그런 의욕을 이미 잃은 냉정한 이치력의 여성 시각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도 차이가 있다. 같은 꽃이지만 하나는 애처로운 ‘동백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욕망과 생기를 잃은 ‘마른 꽃’인 것이다. 두 작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이정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들 삶의 변화 양상」, 『현대소설 연구』, 41집, 2009, 264-268쪽 참조

에 대한 긍정도 엿볼 수 있다.

「마른 꽃」의 할머니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앙금한 소녀 취향이 주책스러우면서도 밋지 않았고, 「너무도 쓸쓸한 당신」은 사돈집에 되지지 않으려는 반발심이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도 전혀 흥물스럽지 않고 오히려 속 뻘히 들여다보이는 장난을 천연덕스럽게 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 노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그리면서 노년의 심리와 젊은이들의 이기주의가 일상의 삶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란 서정적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노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짐승 같은 정육의 세월을 함께 나누어진 노년의 정 같은 사랑이 우선임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노년의 남녀관계를 더욱 따스롭게, 그리고 차원 높게 심화시키고 있는 소설이다. 16)

노후는 세상에서 비껴 난 한가로움이 아니라 그때도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설렘과 사랑에 대한 두근거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노년은 참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온다. 이와 관련해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의 특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박완서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통해 노인문제에 남달리 민감했고, 곧 그것은 소설의 모티프가 되었다. ‘진저리치기’와 ‘연민’이라는 상호 모순된 심리상태는 노인에게 대한 작가적 시각의 이중성으로 드러난다. 박완서의 소설에는 여성 자아가 보다 관계적이고 순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머니와 딸’이라는 구체적인 관계를 형상화하는데서 알 수 있다. 그녀에게 있어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 모티프는 끊임없는 공생적 융합의 과정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흔히 자전적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7)

인용문에서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친·시어머니를 통해 체험한 여성노인의 실체를 작품에 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남옥은 박완서 소설의 노인은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을 띤다고 보았다. 18) 부정적인 노인상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긍정적이거나 따스한 시선의 노인상은 연

16) 정영자, 앞의 논문 30쪽.

17) 위의 논문, 31쪽.

18)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저, 백남문화사, 1996, 10, 286쪽.

민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에게서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갈등을 시시각각 체험하며 살았다는 작가였기에 이러한 이중성의 표출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박완서의 소설에는 먼저 현대사회를 사는 노인의 총체적 위기의식이 드러난다. 자식들과의 불화나 괴리감으로 인한 노인의 소외현상이 나타나며, 또한 그러한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노년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기도 한다. 여성노인이 좀 더 애착을 갖는 것은 가족이다. 또한 병든 노인은 가족 해체의 원인 또는 장치로 드러난다. 특히 여성 노인의 치매증은 가족 해체의 극한적 단서를 제공한다.

5. 맺음말

박완서의 창작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서 박완서의 소설은 웃음과 폭넓은 일상성에 대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노년문학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박완서는 한걸음 나아가 칠순에도 첫사랑은 시작된다는 노년의 오롯한 사랑의 맛에도 담금질하고 있다. 자유, 그리고 무한한 삶의 바탕에 그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는 노년의 사랑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서 OPAL족¹⁹⁾이 연상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최근 핵가족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실버세대들 중에 안정된 경제력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노인들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인 경우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의 연륜은 늙음에 대한 막연하고도 그릇된 공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에 나오는 노인 중에는 OPAL족과도 상통하는 측면을 지닌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의 소설은 인간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거나 변질될 수 없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완서는 젊음이와

19) 영어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경제적인 풍요와 의학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노인층으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며 사는 노인들을 일컫는다.

똑같이 온갖 감정이 고스란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체면이라는 허위적 의식에 의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추어야 하는 인생에 대한 재발견을 시도하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맞보는 삶의 숨겨진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노년여성에게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혈연으로부터 맺어진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더 넓은 공동체를 향해 풍성한 모성을 나누기를 촉구한다.

박완서 소설은 개인이 겪는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사회 현실의 전체적인 문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준다.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뿌리를 둔 직관력과 섬세한 언어 감각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라는 추상 형태를 생생한 리얼리티로 빚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완서 소설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은, 어떻게 해서 개인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마비되고 정신적으로 붕괴되는가의 원인을 파헤치는데 놓여 있다. 이러한 점들은 박완서 소설이 갖는 생명력이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요소로 작동하거나 독자들과의 공감의 폭을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박완서 노년소설이 갖는 문제성과 미래적 가치 및 노년소설의 성과는 다른 작가와의 변별점과 차별성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나아가 여성문학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의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 김경수, 「자성소설의 대두와 그 의미」, 『문학의 편견』, 세계사, 1994.
- 김치수, 「젊음과 늙음의 아름다운 의식」, 『저문 날의 삽화』해설, 문학과지성사, 2002.
- 백지연, 「황혼의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 『동서문학』, 1999년 봄호.
-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 송명희, 「김훈 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화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학술대회발표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7.
- 양진오, 「노인에 관한 명상: 박완서 · 최일남 · 김원일의 소설을 읽으며」, 『오늘의 문예비평』, 2002년 봄.
- 우한용, 『한국현대소설담론연구』, 삼지원, 1996.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저, 백남문화사, 1996, 10.
-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 이정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들 삶의 변화 양상」, 『현대소설연구』, 41집, 2009.
- 이재복, 『한국문학과 몸의 시학』, 태학사, 2004.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임옥희, 「박완서 문학과 페미니즘」, 『박완서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헌출판사, 1991.
- 조남현, 「한국문학과 박완서 문학」,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장미영, 「고령화시대의 선진적 노년문화 조성을 위한 소설독서교육 방안」, 『국어문학』제41집, 2006, 8.
- 정영자,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나이 먹기」, 『여성연구논집』 제16집, 2005.
- 전홍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국어문학』, 42집, 2007, 2.
- 전홍남 「노년소설의 가능성과 문학적 함의- 최일남과 문순태의 소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14, 한국서사학회, 2009 참조.
- 하수정, 「노년의 삶과 박완서의 페미니즘」, 『문예미학』 제 11호, 2004.
- 황도경, 「이야기는 힘이 세다 -박완서 소설의 문체적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2000년, 가을.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70호, 2008년
가을호.

안젤름 그린, 김진아 옮김, 『노년의 기술』, 오래된 미래, 2010.

Kristeva, J., 「여성의 시간」, 김성곤 옮김, 『현대문학비평론』, 한신문화사, 1994.

Walter J. Ong, 이기우 ·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A Study on Poetics and Literary Complication of Park, Wan-seo's Gerontological Novel.

Jeon, Heung—nam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extracting the feature of discourse and the literary meaning that Park Wan-seo's gerontological novels have, making the Old aged novel as a prime object that is in her anthology <Too lonely you>. First of all, this text analyzes <Too lonely you> and several novels in her anthology <Too lonely you>. Thus, I set an object on discovering the problem this novel has, and the future value through her gerontological novel, considering the deficiency of interest and research of gerontological novel.

Her novels that old women are protagonists mostly use confession form or the first person. Besides, though it develops in a form of reminding of aged narration, we can easily notice of the author's 'valuable desire' through an elective disposing of the things that are not forgettable in the stories. Because of that, her novels function a 'Public discourse' though they are garrulous. An 'episode' form is a new discourse form that the author applied to widen the chemistry with readers.

Next, her novels embody the dreams in an ideal scene that are impossible to be realized in reality, by going and returning to the illusion and the realities of life. This is kind of method revealing the severe recognition that our real world is a place of anti-life.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range of analysis and objects of her gerontological novel will be the next problem to be solved.

Keywords : gerontological novel. literary complication, old people with active life, dementia, death, remarriage, feminism, Park Wan-seo.

이 논문은 2010년 7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